

# 성인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중년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with their Adult Children on the  
Happiness of the Middle-aged Parent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곽인숙\*\*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Kwak, In-Suk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tterns of middle-aged parents'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with their adult children and its effects on the happiness of the parents. The sample consisted of 765 middle-aged parents selected from the National Survey of Korean Families by the Ministry of Equality and Family in 201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was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depending on the provider of support: parents who exchanged no support with their children, parents who only received support from

\* 주저자 : 홍성희(hsh@kmu.ac.kr)

\*\* 교신저자 : 곽인숙(kwak1416@naver.com)

their children, parents who only provided support to their children, and parents who exchanged support with their children. Second, parents who exchanged no support with their children were high in instrumental support and those who both provided and received support were high in emotional support. Third, consciousness of their children significantly affecte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The more the parents emphasize on the growth of their children, the more they were satisfied. Parents in the support exchange group were more satisfied when they received economic support from their children. With regard to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 parents were more satisfied when they provided support to or mutually exchanged support with their children.

Forth,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consciousness of their children, and household's income more significantly affected the happiness of middle-aged parents than the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With regard to economic support, parents who only received support from their children were less happy than the other groups. With regard to instrumental support, parents who exchanged no support with their children were happier than the other groups. With regard to emotional support, parents who provided support to their children were happier than the other groups.

**Key Words** : 자녀가치관(consciousness of children), 세대 간 지원교환(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경제적 지원(economic support), 도구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 I. 문제의 제기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중년기가 가시화 될 뿐 아니라 확대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60세 내외이던 과거에는 중년기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매우 짧아 주목받지 못했으나 노년기를 65세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그 이전까지를 중년기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중년기가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켜 자녀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나며, 가장 소득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기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중년기는 자녀부양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소득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업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성인자녀에 대한 중년부모의

역할 수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어성연 외, 2010). 한편 현재 중년층은 ‘100세 시대’를 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0세 시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기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최근 들어 중년에 대한 관심은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 이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현재 14.6%에 달하는(통계청, 2010) 거대한 집단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의 은퇴와 경제적 노후 준비가 베이비부머 개인과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율과 노후준비방법, 은퇴연령 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부머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어 노후가 불안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석재은 외, 2010; 통계청, 2010). 반면 이들의 고용율이 7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며(정경희 외, 2010), 총자산이 3.3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자산인 2.7억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통계청, 2010) 노후소득이 보장된 일부는 노년기에도 유력한 소비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들은 과거 노인세대와는 달리 독립적인 노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11). 그러나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의식과 더불어 자녀부양에 대한 의식은 과거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하며, '일방적인 부양 제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을 폭넓게 수용하는(정경희 외, 2010) 전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중년층의 성인자녀 부양의식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50대의 약 41%가 자녀 양육의 책임 한계를 '대학 졸업 때까지'로 응답하였고,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도 33%에 달한다(김승권 외, 2009).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년층이 삶의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자녀 부양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이들의 자녀가치관 및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즉,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부양을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 의식을 보이면서 자녀에 대한 부양은 여전히,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담하려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충족시키는가, 또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의 이중 부담 속에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중년에게 자녀 지원은 과연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나아가 그들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하는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가족은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일차집단으로, 가족관계는 가족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 만족감을 제공해준다. 가족

관계 중에서도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떤 사회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속적인 유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년부모는 자녀와의 결속과 교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며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옥선화 외, 1991; 유지영 외, 1994). 최근에는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가사와 육아를 돕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경제력이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김정석 외, 2000). 중년기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년기보다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인 자녀에게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년기에는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어 결국 노부모와 자녀부양에 대한 이중 부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중년의 부모와 성인 자녀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중년부모가 자녀로부터 자원을 제공받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년의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 뿐 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할 가능성 또한 중년 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에 자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자원 이전 또는 자원 교환이라는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중년기 이후 경제적 자원의 급속한 감소와 자원의 측정 문제로 인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구(고선강, 2011; 김순미 외, 2011; 김지경 외, 2008; 이윤정 외, 2011)에 집중되어 왔으나, 부모 자녀 간에 경제적 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을 교환하는 경우나 지원 전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 이외에 도구적 도움, 정서적 지지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자녀와의 관계 및 행복과 같은 주관적, 심리적 인식에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이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중년부모의 행복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녀가치관 및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중년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며 행복에 기여하는지를 밝히고, 또 중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중년기의 연구관심을 다양한 지원영역으로 확대시켜 지원 양상과 지원 결과로 나타나는 부모의 행복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년기에 있는 부모들에게 한정된 자원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준비와 자녀 지원을 선택적으로 배분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행복한 노년기를 위해 중년기 동안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발달과업으로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실천적인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으로는 중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행복의 개념과 요소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곽인숙, 2013) 또는 ‘개인의 삶 전체에 대해 느끼는 깊은 만족’(유제민, 2012)을 뜻한다. 이처럼 ‘욕구의 충족’, ‘만족’, ‘기쁨’ 등은 개인이 생활 경험으로부터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개개인이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통해(Andrew & Withey, 1976; Campbell, 1976)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행복의 개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온

학문분야를 찾아보면 철학적 논의는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라 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최고의 선이며,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권석만, 2008). 이러한 고대 사회의 행복관은 행복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이 충족된 최고의 상태라는 점에서 볼 때 현대인이 추구하는 행복과 다르지 않다.

현대 이후 진전된 행복에 대한 철학적 주장은 크게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으로 구분된다. 쾌락주의적 입장에서는 행복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유쾌한 상태’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본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과 삶의 만족도로 표현되기도 한다. 반면 자기실현적 입장에서 행복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즉 ‘긍정적 성격특성과 덕목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휘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입장에 근거해 행복에 대한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가 긍정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에서 보는 행복의 개념은 쾌락주의의 입장에 근거해 주관적 경험들, 즉 행복감, 주관적 안녕,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긍정 심리학을 처음 제안한 Seligman은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사는 ‘즐거움 삶, 성격적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실현을 이루어나가는 ‘적극적인 삶,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권석만, 2008). 즉,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 심리학이 지향하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행복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관적 안녕'의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행복에 대한 접근을 처음 시도한 사람은 Wilson(1967)이다. 그는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을 사용하여 '성과 지능에 관계없이 젊고, 건강하고, 교육받고, 돈이 많고, 외향적이며, 걱정 없고, 낙관적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대신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 Diener(1984, 1994)는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의 기대, 희망, 또는 다른 준거집단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경험을 포함한 정서적 안녕감'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주관적 안녕감을 행복의 심리적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Schultz와 Heckhausen(1996)은 Rowe와 Kahn이 제시한 성공적 노후의 개념을 노년기에 국한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성공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전생애주기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Rowe와 Kahn(1987)은 노인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성공적 노후'의 개념을 '질병이 없고, 높은 인지능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 성공적 노후는 노년기 이전의 생활과 관련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되기(박경희, 2005) 때문에 이를 노년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생애주기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따라서 행복을 조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 성공적 노후 등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그 개념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또한 행복의 개념은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각 문화권에 적합한 행복 개념 및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

들을 파악하고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을 통해 행복의 개념에 접근해왔다.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을 밝히고 측정하는 시도를 해왔다. 김명소 외(2003a)는 표적집단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행복한 삶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1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이 척도 중 응답자들은 배우자 및 이성, 자녀, 부모친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사회·정치·문화·환경적 여건, 종교 등을 빈번하게 언급한 반면 국외의 행복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식 및 학습, 창조성, 예술적 노력 등 심미적 및 학구적 요인들은 언급하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김명소 외(2003b)는 한국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은 집단이 각각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행복감을 느꼈다. 또한 '성취 및 자기수용', '경제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여가', '이타심'과 같은 '행복한 삶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취 및 자기수용'과 '경제력'의 두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수준, 학력 등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분석에서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개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하는 성취 및 자기수용감'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명숙(2012)은 학문적으로 정의된 행복 개념보다는 일반인의 경험에 근거한 행복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접한 결과 한국인의 행복 개념은 신체적 안녕, 정서적 안녕,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 영적 안녕, 윤리적 충만, 미래 세대의 안녕, 경제적 안정의 8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정서적 안녕'은 가장 많은 32%의 참여자들이 '행복'이라고 할 때 떠올린 개념이며, 그 다

음으로 많이 나타난 행복개념은 ‘심리적 안녕’(27%)이었다. 이때 ‘정서적 안녕’이 주관적 심리상태라면, ‘심리적 안녕은 자신과 환경을 둘러 보고 비교하여 얻게 되는 객관적 심리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미래세대의 안녕’은 ‘자식들이 행복한 것’, ‘건강히 잘 사는 것’ 등을 의미하는 행복 개념으로,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가장 행복했던 경험’과 ‘가장 불행했던 경험’에서 추출한 행복 개념은 ‘사회적 안녕’ 경험과 ‘사회적 안녕의 상실’ 경험이 각각 가장 많았다. 또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역시 ‘사회적 안녕’이었다. 즉, ‘사회적 안녕’이 행복의 구성요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의 집단주의,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이며, 그만큼 한국인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관계에서의 안녕’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곽인숙(2013)은 50세부터 64세까지의 중년층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행복의 중요요소를 질문한 결과 ‘건강’이 압도적으로 많은 66.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돈’, ‘일(직업)’, ‘자녀’, ‘배우자’, ‘가정생활’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순위로 건강을 선택한 66.6% 중 2순위로 ‘돈’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28.6%로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은 행복의 요소로서 ‘건강’과 ‘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년층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주관적 경제 상태를 높게 인식할수록, 유배우자가, 남성이 더 행복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이외에 가정건강성과 행복의 중요요소 변수를 추가시켜 분석했을 때 가정건강성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행복의 중요요소로 건강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과 건강 및 가족,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의 행복 수준이 높았다. 노인층의 행복에는 가정건강성,

주관적 경제상태, 건강상태, 거주지가 영향을 미쳤다. 중년층의 행복수준이 노인층에 비해 높으며 두 집단의 행복요소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살아온 시대적, 사회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행복과 자녀관계

중년기는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절정기에 있는 한편 은퇴를 앞둔 시기이다. 또 개인적 발달의 측면에서는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며 갱년기 증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생활주기 상으로는 ‘빈 둥지 시기’에 해당되어 상실감과 함께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년기에는 심리적 혼란과 고통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중년기를 위기의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이우경 외, 2008; 안현선 외, 2009). 특히 중년 여성은 자녀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맡으면서 자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빈 둥지 시기’를 거치면서 정서적 상실감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성인 자녀와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중년을 대상으로 자녀관계와 행복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정경희 외(2011)는 3,027명의 베이비부머를 분석한 결과 ‘자녀는 삶의 의미이며 노후에 심리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지만, ‘도구적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부양기간에 대해 41.5%가 ‘결혼할 때까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부양기간이 과거에 비해 길어졌으며,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노후자금이 자녀부양비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부양 부담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를 자녀, 성인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로 분류하여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낮은 만족도는 베이비부머가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속에서 성인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 상호 역할 정립, 경제적 부담 등의 적응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양정선 외, 2011).

그러나 안지선 외(2012)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 교육수준, 가구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여성에 대한 옥선화 외(1991), 유지영 외(1994)의 연구 또한 중년 여성의 생활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중년기에 자녀와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행복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년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자원 이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최근 시도되고 있다. 자원 이전에 대한 실태는 주로 경제적 자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김지경 외(2008)는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의 26.6%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받기도 하는 상호교류유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 중년의 어머니와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비교한 이윤정 외(2011)의 분석에서는 미혼자녀보다는 기혼자녀와의 경제적 상호교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의 결혼 후에도 경제적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순미 외(2012)는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자원 이전을 조사한 결과 가계소득, 가계자산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중년층은 제공하지 않

은 중년층과 비교하여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보다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중년층이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경제적 자원을 할애함으로써 자신의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결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인숙(2011)은 노인과 자녀세대 간의 지원 중 노인에게 제공되는 수단적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과 자녀의 상호지원이 많을수록 성공적 노후생활인식도 높아졌으며, 노인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영역으로는 '정서적 지원의 제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노인과 자녀와의 지원교환유형 중 '상호 교환형'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가장 성공적으로 인지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중 '수단적 지원'이 가장 많지만, 노후생활에 심리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은 '정서적 지원'이며, 또 자녀와 자원을 주고받는 '교환형'이 더 노후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행복 관련요인

#### 1) 성별

서구의 연구에서는 전반적 행복감과 만족도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Rodgers, 1976; Sauer, 1977).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남성의 행복감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역할인식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의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성보다

낮았던 배경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였다. 성인의 행복감을 비교한 김명소 외(2003b)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심리적으로 유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광인숙(2013)의 예비노인 대상 연구에서도 남성이 인지하는 행복의 수준이 여성에 비해 더 높았으며, 성별은 예비노인의 행복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령

Andrews & Withey(1976), Sauer(1977)는 행복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행복에 대한 연령의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김명소 외(1999)의 연구에서는 20-30대 기혼여성들이 40-50대에 비해 애정, 만족감, 기쁨, 자부심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행복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김명소와 김혜원(2000)의 연구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모두 낮아졌다. 신희석(2002)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연령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았으며, 지각연령이 낮은 집단의 시간 전망의 확대와 심리적 만족감 등이 높아 중년기의 위기감을 덜 느끼고 있었다. 양정선 외(2013)는 개인의 행복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은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광인숙(2013)의 중년층과 노인의 행복을 비교한 결과 역시 중년층의 행복수준이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구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 인지하는 행복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 3) 가계소득

많은 연구들은 소득과 주관적 안녕이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raun, 1977; Campbell, et al., 1976). 이들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같은 관련 변인들 통제된 후에도 소득이 주관적 안녕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Manicini 와 Orthner (1980)는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소득 자체도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부유한 사람 또는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소득 또는 경제적 풍요가 개인의 행복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0-50대 중년층 주부를 대상으로 한 신희석(2002)은 월평균소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명소 외(2003b)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제민(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소득의 유형이나 생활비 정도에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행복감에 보다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인숙(2013)의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의 성인들이 행복의 요소 중 ‘건강’ 다음으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높게 인식할수록 행복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개인 및 가구의 객관적 소득액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상태 또한 행복 인식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 4) 교육수준

Campbell(1981)에 의하면 교육수준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소득과 같은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통제되면 교육



수준은 행복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였다(Clemente & Sauer, 1976). 우리나라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명소 외(1999)는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학력은 성인 여성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김명소 외(2003b)의 행복감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학력이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유제민(2012)은 학력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높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좌절감과 불행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학력이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양정선 외(2013) 또한 교육수준 집단별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더 행복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은 소득 및 주관적 경제상태 등과 상호작용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 5)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할 경우 신체적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일상행동수행에 장애가 있어 행복감이 낮아질 수 있다(김수옥 외, 2000). 건강은 개인의 행복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로서 개인의 행복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상곤 외, 2008).

실제적인 건강 이외에 지각된 건강상태도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Newsom & Schulz, 1996).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질병보다는 안녕을 강조하는 측정방식이다(서연숙, 2010). 주관적

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자신의 심신에 대한 통찰력, 낙관적 태도, 그리고 사회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복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Beekman et al., 2002을 유제민, 2012에서 재인용). 곽인숙(2013)의 연구에서 50대 이상의 성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로 ‘건강’이 가장 많은 66.6%를 차지하며,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는 행복에 가장 큰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중년층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건강임을 알 수 있다.

##### 6) 자녀 관련요인

본 연구에서 다룬 자녀 관련요인은 성인자녀의 결혼여부, 중년 부모의 자녀가치관 및 자녀관계 만족도이다. 이들 요인과 중년 부모의 행복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없으나 중장년기의 한국인들은 자녀교육의 성과에, 노년기에는 자녀들이 잘 사는 것과 자신의 행복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김명숙, 2012). 그러므로 중년 또는 노년 부모의 자녀와의 자원이전실태 및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중년의 행복과 자녀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유추하고자 한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성을 자녀와의 관계 또는 자녀가치관에서 찾고 있다. 김미혜 외(2004), 백지은 외(2005)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자녀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다른 영역들이 자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서 자녀에게 지속적인 지원 제공과 부모의 역할 완수가 강조되고, 자녀들이 성공할 경우 이를 자신의 성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배문조(2011)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이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적 안녕과 함께 자녀행복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부와 비취업자들은 자신의 성공적 노

후생활의 요소로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중요하게 여겼다. 정병은과 이기홍(2010)은 서구사회의 경우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강조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가족관계, 그중에서도 특히 자녀들에게 투영되는 삶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중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식을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 ‘자녀에 대한 지원 제공’과 ‘자녀의 사회적 출세’에 대해 가장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자녀 지원’에 대해 40대와 50대 중반의 ‘베이비붐 세대와 386 세대’ 및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정보화 세대’는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세대’ 및 65세에서 74세의 ‘전기 노인세대’에 비해 중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또한 ‘후기 노인세대’ 및 ‘전기 노인세대’가 자녀를 통해 삶을 보상받고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인식을 가진 것과 달리 ‘베이비붐 세대와 386 세대’ 및 ‘정보화 세대’는 노년기 삶을 자녀의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 삶과 자녀를 분리시키는 가치관을 보이는 현상이 지적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노인층에 비해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에 자녀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자녀와의 관계 유지방식이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년 부모의 행복요인 중 성인자녀와의 지원교환 및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따라서 중년 부모가 성인자녀와 교환하는 지원의 영역과 교환유형에 따른 자녀관계 만족도 및 행복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중년 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녀관련 요인, 자녀와의 지원교환유형, 자녀관계 만족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 부모의 성인자녀와의 지원교환 유형은 지원의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중년 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와 행복은 지원교환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년 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지원교환유형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중년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지원교환유형, 자녀관계 만족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중년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지원교환유형, 그리고 자녀관계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 1) 독립변수

######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개인적 배경을 나타내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월평균 가계소득 등을 선정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까지의 12단계로 조사되었으며, 회귀분석에서는 교육연수로 환산하

여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을 다섯 단계로, 월평균 가계소득은 ‘지난 1년간 가족의 월평균 총소득’으로 조사하였다.

(2) 자녀관련 요인

자녀가치관은 자녀와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한 생각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녀결혼 여부는 25세 이상의 성인자녀를 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인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첫 자녀를 기준으로 결혼한 경우 1, 미혼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3) 지원의 영역 및 교환유형

지원의 영역은 정병은(2007)이 사용한 재정적 지원, 정서적 지원, 신체적 지원을 참고로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즉, 경제적 지원은 생활비나 용돈 지원을, 도구적 지원은 가사노동이나 집안일에 도움을 주는 지원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원은 개인문제나 집안 문제에 대한 의논과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각 지원영역에서 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지원을 교환하는 방향에 따라 지원교환유형을 분류하였다. ‘상호교환’형은 부모와 자녀가 지원을 서로 주고받는 유형이며, ‘부모지원’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유형, ‘자녀지원’형은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유형, ‘교환 없음’형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지원을 교환하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

(4) 자녀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는 현재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행복	1= 매우 불행 10= 매우 행복
독립변수 사회인구학적요인 성별D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월평균가계소득 자녀관련 요인 자녀가치관 자녀결혼여부 자녀관계 만족도	1=여성 0=남성 만 나이 교육연수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대체로 좋음 5=매우 좋음 지난 1년 간 가족의 총소득/ 12개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1=전혀 그렇지않다 2=별로 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1=자녀 결혼 0=자녀 미혼 현재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다소 불만족 3=보통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지원교환유형	상호교환 부모와 자녀가 지원을 상호 교환함 부모지원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함 자녀지원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함 교환 없음 부모와 자녀 간 지원을 하지 않음

D: Dummy variable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65)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48	45.5
	여성	417	54.5
연령	55세 미만	271	35.3
	55-59세 미만	288	37.7
	60-64세 미만	206	27.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141	17.6
	중학교 졸업	181	23.7
	고등학교 졸업	350	45.7
	대학교 졸업 이상	92	12.0
월평균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75	9.7
	100-200만원미만	187	24.4
	200-300만원미만	163	21.3
	300-400만원미만	145	18.9
	400-500만원미만	57	7.5
	500-600만원미만	65	8.4
	600만원 이상	73	9.8
자녀 결혼 여부	미혼	403	52.7
	기혼	362	47.3
		평균	표준편차
주관적 건강상태(5점)		3.49	.824
자녀 가치관(5점)		4.04	.681
행복(10점)		6.78	1.345

###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행복에 대한 조작적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할 때 느끼는 주관적이고 일상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귀하는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를 질문하여 스스로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응답한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매우 불행’의 1점에서부터 ‘매우 행복함’의 10점까지로 측정되었다.

###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연구의 자료는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의 측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

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CAPI 방식의 일대일 방문면접조사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였다. 원 자료는 전국 2,500개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한 총 4,754명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에 맞는 48세 이상 64세까지의 중년(베이비부머 세대와 예비노인)에 속하며 성인자녀가 있는 대상자 76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자료의 분석은 모집단인 전국 일반가구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가 부여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 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지원교환유형에 따른 자녀관계 만족도와 행복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관계 만족도와 행복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상관관계와 공선성 진단을 통해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했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5.5%, 여성 54.5%로 여성이 약간 더 많이 분포되었다(표 2 참조). 연령은 55세 미만이 35.3%, 55-59세 미만이 37.7%, 60-64세 미만이 27.0%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학교 졸업이 23.7%, 초등학교 졸업이

〈표 3〉 중년부모와 성인자녀 간 지원의 영역과 지원교환유형

(N=765)

지원교환유형	지원영역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상호교환	64	8.3	98	12.8	278	36.3		
부모지원	155	20.3	128	16.7	107	13.9		
자녀지원	183	25.1	57	7.4	62	8.1		
교환없음	354	46.3	482	63.1	318	41.6		

17.6%로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다. 월평균가계소득은 100-199만원인 집단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00-300만원 미만인 21.3%였다. 자녀결혼여부로서 성인자녀가 미혼인 경우가 52.7%로 조금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49점(최대 5점)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약간 양호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녀가치관은 평균 4.04점(최대 5점)으로 ‘자녀의 성장이 부모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행복의 수준도 평균 6.78점(최대 10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 2. 중년부모와 성인자녀 간 지원의 영역과 지원교환유형

중년의 부모와 성인 자녀가 주고받는 지원의 영역 별로 지원교환유형의 실태를 알아보았다(표 3 참조). 경제적 지원 중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 교환하지 않는 ‘교환 없음’형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지원’형이 25.1%, ‘부모지원’형이 20.3%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제공하는 ‘부모지원’형과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녀지원’형의 비중이 높았다. 도구적 지원에서는 ‘교환 없음’형이 63.1%로, 절반 이상이 성인자녀와 가사나 집안일에 도움을 주는 도구적 지원을 서로 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지원’형은 7.4%에 불과한데, 이는 세 가지 지원유형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

다. 이는 조사대상이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집안문제 등을 상담하는 정서적 지원의 경우 ‘교환 없음’형이 41.6%로 가장 많았으나, ‘상호교환’하는 유형도 36.3%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지원’형이 13.9%,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이 8.1%로 낮았는데 이 또한 부모가 중년층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비율에 비해 자녀의 지원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교환유형의 차이로는 가사노동이나 집안일과 같은 도구적 지원의 교환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개인문제나 집안일을 서로 상담하는 정서적 지원의 교환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직 중년기에 있는 부모가 성인자녀와 도구적 지원을 주고받을 필요성이 높지 않은 한편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의논하는 대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부모지원’형과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자녀지원’형이 다른 지원영역에 비해 높았다. 자녀의 지원을 중심으로 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영역 중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가장 많으며, 약 25%의 성인자녀가 중년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의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한쪽에서 지원하는 유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 지원의 교환유형에 따른 중년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와 행복

(N=765)

		자녀관계 만족도		행복	
		평균	F값	평균	F값
경제적 지원	상호교환	3.59	N.S.	6.78 A	11.947***
	부모지원	3.59		7.01 A	
	자녀지원	3.59		6.30 B	
	교환없음	3.53		6.94 A	
도구적 지원	상호교환	3.62 AB	6.491***	6.57 BC	5.292***
	부모지원	3.78 A		6.96 A	
	자녀지원	3.51 B		6.22 C	
	교환없음	3.50 B		6.85 AB	
정서적 지원	상호교환	3.76 A	25.103***	6.73 B	4.703**
	부모지원	3.76 A		7.18 A	
	자녀지원	3.49 B		6.43 B	
	교환없음	3.35 B		6.77 B	

\*\*p<.01 \*\*\*p<.001

### 3. 지원교환유형에 따른 중년 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와 행복

조사대상자들의 지원교환유형에 따라 자녀관계 만족도와 행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지원유형별로 분석하였다(표 4).

경제적 지원의 경우 지원교환유형에 따른 자녀관계 만족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복수준에는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받는 ‘자녀지원’형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반면,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지원’형의 행복감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나머지 두 집단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1). 도구적 지원의 경우 부모와 자녀사이에 도구적 지원을 주고받지 않는 ‘교환 없음’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사와 집안일에 도움을 주는 ‘부모지원’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하는 경우 가장 높았으며, 자녀에게서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경우 가장 낮았다(p<.001). 이러한 결과

는 조사대상이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건강상태와 신체적 조건이 뒷받침되는 중년층이므로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 부모와 자녀와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상호교환’형이나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지원’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자녀지원’형 또는 ‘교환 없음’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부모가 자녀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거나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우 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였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지원’형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개인문제나 집안문제 상담의 대상이 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유정과 안정신(2011)의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 경험이 중년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준다는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표 5) 경제적 지원 교환유형에 따른 중년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관계 만족도		행복		
	B	$\beta$	B	$\beta$	
성별(남성)	.036	.027	-.007	-.003	
연령	.009	.059	-.001	-.002	
교육수준	.030	.152***	-.012	-.030	
주관적 건강상태	.089	.112**	.574	.352***	
월평균 가계소득	.030	.183***	.048	.140***	
자녀가치관	.229	.237***	.367	.186***	
자녀결혼여부	.077	.059	.246	.091**	
지원교환유형(자녀 지원)	상호 교환	-.014	.322	.066	
	부모 지원	-.166	-.102*	.336	.101**
	교환 없음	-.196	-.149***	.350	.130***
자녀 관계 만족도	-	-	.274	.134***	
상수	1.190**		2.142**		
F-value	14.539***		30.276***		
R2(Adj.R <sup>2</sup> )	.162(.151)		.307(.297)		

\* p<.05 \*\*p<.01 \*\*\*p<.001

#### 4. 중년 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 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녀관련 요인을 독립변인, 자녀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회귀분석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자녀관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지원 영역별로 실시하였다.

경제적 지원에 따른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년 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가치관( $\beta=.237$ )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즉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할수록 자녀관계 만족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월평균 가계소득, 교육수준, 경제적 지원의 ‘교환이 없는’ 형,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지

원’형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생각할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 경제적 지원을 서로 교환하지 않거나 부모가 지원하는 유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형의 자녀관계 만족도에 비해 낮았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5.1%였다.

중년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beta=.352$ )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즉 자신의 건강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양호하다고 느낄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녀가치관, 월평균 가계소득, 자녀관계 만족도, 자녀와 경제적 지원을 상호 교환하지 않는 유형,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유형, 자녀결혼여부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성장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질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결혼한 경우 중년의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

(표 6) 도구적 지원 교환유형에 따른 중년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관계 만족도		행복	
	B	$\beta$	B	$\beta$
성별(남성)	.059	.045	-.035	-.013
연령	.011	.074*	-.002	-.007
교육수준	.030	.154***	-.013	-.034
주관적 건강상태	.076	.095**	.600	.367***
월평균 가계소득	.023	.136***	.055	.161***
자녀가치관	.224	.232***	.369	.187***
자녀결혼여부	.109	.083*	.174	.065
지원교환유형(자녀 지원)	상호 교환	.125	.063	.152
	부모 지원	.198	.113*	.348
	교환 없음	-.031	-.023	.490
자녀 관계 만족도	-	-	.266	.130***
상수	1.162**		2.189**	
F-value	14.763***		30.687***	
R2(Adj.R <sup>2</sup> )	.164(.153)		.310(.300)	

\* p<.05 \*\*p<.01 \*\*\*p<.001

제적 지원을 서로 교환하지 않는 유형이나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하는 유형의 행복수준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형에 비해 높았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9.7%였다.

도구적 지원의 교환유형에 따른 중년 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 및 행복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중년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녀가치관( $\beta=.232$ )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부모 지원’형,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결혼여부, 연령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녀가치관이 강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생각할수록, 자녀가 결혼한 경우,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사노동이나 집안일을 지원하는 유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형에 비해 높았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5.3%였다.

중년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beta=.367$ ), 자녀가치관, 도구적 지원의 교환이 없는 유형, 월평균 가계소득, 자녀관계 만족도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의 성장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할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중년의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와 도구적 지원을 주고받지 않는 유형의 행복감이 자녀로부터 지원 받는 유형에 비해 높았다. 변수들의 설명력은 30.0%였다.

정서적 지원의 교환유형에 따른 중년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 및 행복의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중년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에는 자녀가치관( $\beta=.246$ ), ‘상호교환’형, ‘교환 없음’형, 월평균 가계소득,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결혼여부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즉 자녀가치관이 강할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표 7) 정서적 지원 교환유형에 따른 중년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관계 만족도		행복	
	B	$\beta$	B	$\beta$
성별(남성)	-.002	-.002	.008	.003
연령	.005	.035	-.004	-.012
교육수준	.020	.101**	-.005	-.013
주관적 건강상태	.070	.088**	.604	.370***
월평균 가계소득	.021	.124**	.048	.142***
자녀가치관	.237	.246***	.362	.183***
자녀결혼여부	.097	.074*	.242	.090**
지원교환유형(자녀 지원)	상호 교환	.216	.158**	.102
	부모 지원	.146	.077	.393
	교환 없음	-.167	-.125*	.304
자녀 관계 만족도	-	-	.278	.136***
상수	1.482***		2.128**	
F-value	20.001***		29.974***	
R2(Adj.R <sup>2</sup> )	.210(.199)		.305(.294)	

\* p<.05 \*\*p<.01 \*\*\*p<.001

생각할수록, 자녀가 결혼한 경우 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지원교환유형 중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개인문제나 집안일을 서로 의논하는 유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자녀지원을 받는 유형에 비해 높았으나, 교환 하지 않는 유형은 자녀에게 지원을 받는 유형보다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았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9.9%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여성의 생활에서 주로 자녀와의 관계가 주축이 되고 자녀의 행동을 통해 자녀관계에 대한 심리적 만족을 얻으며, 특히 정서적 지원교환이 많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와 행복의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옥선화 외, 1991; 유지영 외, 199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중년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beta=.370$ )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즉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할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가치관, 월평균 가계소득, 자녀관계 만족도, ‘부모 지원’형, 자녀결혼여부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녀가치관이 강할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관계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자녀가 결혼한 집단의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 교환유형 중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유형의 행복수준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형에 비해 높았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9.4%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원의 영역에 관계없이 중년 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자녀가치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자녀의 성장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보는 가치관을 보유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는 자녀의 지원을 받는 유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도구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의 영역에서는 부모가 지원을 하거나 상호 교환하는 유형이 자녀의 지원을 받는 유형보다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중년의 행복 수준은 지원교환유형보다는 개인의 건강상태, 자녀가치관, 가계소득의 영

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는 콕인숙(2013)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중년층의 행복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한국인의 행복에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경제력, 건강을 꼽았던 김명소 외(2003b)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계소득이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Campbell, et al., 1976 ; 김명소 외, 2003b; 콕인숙, 2013)에서 밝혀진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관계 만족도는 모든 지원영역에서 부모의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이는 안지선 외(2012)의 중년기 남성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 유사하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지원 교환이 자녀관계 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교환 유형으로서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 상호 ‘교환 없음’ 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가사나 집안일과 같은 도구적 지원의 교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의 영역에서는 상호교환보다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부모 또는 자녀가 용돈이나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이 더 많았으며, 개인문제나 집안문제 등을 상담하는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는 일방적 지원유형보다 상호 교환하는 유형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아직 연로하지 않은 중년층이며, 개인이나 집안 문제의 상담대상자로 가족을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지원교환 유형에

따라 자녀관계 만족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의 행복에는 영향을 미쳐 부모가 자녀로부터 지원 받는 유형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유형의 행복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도구적 지원의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환이 없는 유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도움을 주는 유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주는 유형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 자녀와 부모가 상호지원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유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부모가 정서적 지원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다.

셋째, 중년 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모든 지원영역에서 자녀가치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강하게 보일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였다. 한편 지원교환 유형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는 자녀에게서 지원을 받는 유형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부모지원’형 및 ‘교환 없음’형에 비해 높았으나, 도구적 지원의 경우 ‘부모 지원’형이 ‘자녀 지원’형에 비해 높았으며, 정서적 지원의 경우 ‘자녀지원’형이 ‘상호교환’형에 비해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았으나 ‘교환 없음’형에 비해서는 높았다. 그러나 행복에는 지원교환보다는 자신의 건강상태, 자녀가치관, 가계소득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는 자녀에게서 지원을 받는 유형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도구적 지원 영역에서는 교환 없는 유형이 자녀에게서 지원을 받는 유형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유형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역은 경제적 지원 영역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은 보다 일방적으로 지원되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제공하는 ‘부모지원’유과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녀지원’형의 비중이 높았다. 경제적 지원은 다른 지원과 달리 가용한 소득이나 여유 자산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 중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일방적 방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지원이 가장 활발하지 않은 영역은 도구적 지원이었다. 도구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지원하지 않는 ‘교환 없음’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지원하는 ‘자녀지원’형은 모든 영역의 지원교환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부모가 가사노동이나 집안일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젊은 중년층이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도구적 지원은 집이나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갖는데, 기혼자녀일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따로 사는 자녀들이 먼 거리에 있거나 자주 방문하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상호 교환하는 유형이 일방적인 지원유형에 비해 높으며, 또 세 가지 지원 영역 중에서도 가장 높다. 그만큼 중년 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정서적 지원이 활발히 교환되고 있으며, 이는 서로 의존하고 지지해주는 부모 자녀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년 부모의 자녀관계 만족도는 경제적 지원과는 무관하게 인지되며, 도구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유형,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자녀와 상호 교환하는 유형에서 높았다. 또한 부모의 행복은 지원 영역별로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 지원을 자녀로부터 받

는 집단이 행복하지 않았으며, 도구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집단이 가장 행복해했다. 따라서 세부적인 지원영역을 떠나 대체로 자녀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더 자녀관계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을 중년기 부모의 역할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김미혜 외 (2004), 백지은 외(2005)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성공적 노화에서 자녀에게 지속적인 지원 제공과 부모의 역할 완수가 강조된다고 한 견해와 비교해 볼 때 중년 부모의 성인자녀 지원 역할 인식이 노년층과 다르지 않으며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자녀 부양관이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지원을 자녀로부터 받는 부모의 행복이 가장 낮은 현상을 경제적 지원교환유형 비율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부모보다 자녀로부터 받는 부모가 더 많은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대상자 중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부모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경우 부담을 느끼거나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행복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년 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는 자녀가치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가 양호한 부모들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년 부모의 행복에 가장 강력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였으며,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가치관이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모든 지원 영역에서 행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가계소득과 자녀관계 만족도가 중년부모의 행복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영역별 지원교환유형 중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경우 부모가 지원하거나 서로 교환하지 않는 유형이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유형에 비해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도구적 지원 영역에서도 상호 '교환 없음'형의 행복수준이, 정서적 지원의 경우 '부모지원'유의 행복수준이 '자녀지원'형에 비해 더 높았던 결과는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해주거나 또는 부모가 지원해줄 수 없는 경우 서로 지원하지 않는 부모가 더 행복함을 의미한다. 부모가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로 자녀에게 조언과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교환하지 않는 부모가 더 행복해지는 현상은 부모 또는 자녀세대가 과거의 강한 가족중심적인 의식과 달리 독립적인 생활태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세대의 측면에서는 자녀 지원이 결국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자신의 노부모에 대한 지원과 병행해야 할 경우 이중 부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치관을 비롯해 자녀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지원교환 등의 자녀관련 요인은 중년 부모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년기에 이루어지는 자녀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와 결론으로부터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중년의 부모는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도구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 행복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노년기에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 경제적 준비를 비롯한 신체적 준비 및 정서적 준비를 노년기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노년기 뿐 아니라 중년기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중년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행복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년기에 이루어지는 자녀

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므로 성인자녀와의 정서적 지원을 높일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나 세대간 상호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는 가족단위의 여가생활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 요망된다. 또한 중년의 행복이 건강상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므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갱년기 증상 예방과 관리, 미관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과 같은 건강 교육을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변수가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부모의 거주지역, 자녀수와 성별, 동거여부, 그리고 자녀 관련요인으로서 역시 거주지역, 자녀수와 취업여부 등의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주지역이 대도시 또는 농촌인가에 따라 자녀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거리 등도 지원교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지표, 즉 중년기의 신체적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성인병과 만성질환, 정신적 건강을 나타내는 우울증의 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중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과 건강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년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자녀가치관 및 자녀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지원교환 등 자녀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입증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중년 부모의 행복 요인 중 자녀 관련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를 통해 중년기 부모가 성인이 되고 결혼으로 독립한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적절한 부모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중년 나아가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고선강(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 이전 :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57-175.
- 2) 곽인숙(2011).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1), 107-120.
- 3) 곽인숙(2013). 노인과 예비노인의 가정건강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1), 1-16.
- 4)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서울 : 학지사.
- 5)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6) 김명소·성은현·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41-55.
- 7) 김명소·김혜원(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 8) 김명소·김혜원·차경호·한영석·임지영(2003a).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2), 415-442.
- 9) 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2003b).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2(2), 1-33.
- 10) 김명숙(2012). 한국인의 행복과 좋은 죽음에 대한 표상과 인식의 특징. 인문학연구, 86, 307-351.
- 11)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12) 김상곤·김성중(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325-351.
- 13) 김수옥·박영주(2000).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행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2(1), 59-70.
- 14)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15)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6) 김유정·안정신(2011). 중년기 성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성인기 이전 생활사건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한국노년학, 31(3), 445-461.
- 17)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18)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89.
- 19) 박경희(2005).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0)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 21) 백지은·최혜경(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 22) 삼성경제연구소(2011). 뉴시니어 세대의 3대 키워드. SERI 경영노트. 삼성경제연구소.
- 23) 서연숙(2010). 중년기 남녀의 건강행위와 건강수준 연구. 사회복지리뷰, 15, 35-51.
- 24) 석재은·이기주(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특성별 유형화와 다층 노후소득보장 전략.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 DB학술대회 자료집, 25-74.
- 25) 신희석(2002).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7(1), 29-45.
- 26) 안지선·전혜정(2012). 중년기 은퇴로의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가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65-85.
- 27) 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 28) 양정선·고지영·이상림·이정화(2011). 경기도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생활 및 노후준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29) 양정선·신용연(2013). 경기도민의 가족 및 생활환경 인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30) 어성연·고선강·조희금(2010). 전문직 미혼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9.
- 31) 옥선화·이기춘·이기영·이순형·공인숙(1991).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35-154.
- 32) 유제민(2012). 성과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른 한국 노인의 행복결정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9(3), 375-404.
- 33) 유지영·김명자(1994).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51-165.
- 34) 이우경·방희정(2008). 성인기 여성의 스트레스, 마음 챙김, 자기-자기애,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 증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4), 127-146.
- 35)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36) 이인정(2009). 초고령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359-382.
- 37) 임효연(2009). 일본 대도시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지원교환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7(5), 59-66.
- 38)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김경래·박보미·유혜영·이은진(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9)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1).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40) 정병은·이기홍(2010).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조사연구 :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2), 45-69.
- 41)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통계청.
- 42) Andrew, F. M. &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43)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44)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45) Campbell, A.(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 MacGraw Hill.
- 46) Clemente P. & Sauer, W. J.(1976). Life Satisfactio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54, 621-631.
- 47)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48)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49) Manicini, J. A. & Orthner, D. K.(1980). Situational influences on leisure satisfaction

- and moral in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8, 466-471.
- 50) Newsom, J. T. & Schulz, R.(199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1, 34-44.
- 51) Rowe, J. W. & Kahn, R. L.(1987).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37, 433-441.

- 투 고 일 : 2014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4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1월 28일